

KIRI 세미나 | 소비자 금융역량 진단과 정책과제

#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 진단과 강화방안

변혜원·이재연

2025.5.26.

Ⅰ

서론

---

# 논의배경

-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은퇴 후 생존기간이 늘어나고 있음**
  - 65세 인구 비율: 2010년 10.8% → 2025년 20.3% (초고령사회 진입) → 2035년 29.9%
  - 65세 기대여명: 2010년 19.8년 → 2023년 21.5년으로 증가
  -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65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발생
  - 2024년 5월 기준 55~64세 인구 중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경우의 평균 연령은 59.7세, 조기 퇴직(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의 경우 평균 연령은 51.2세 (윤정혜, 2025)
  
- **따라서 자산인출기에서의 안정적인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논의배경

- 금융역량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중요하지만, 중고령기의 **자산 규모와 필요 재무 결정들을 고려할 때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은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중고령기에는 생애 자산 축적이 정점에 도달함
  - 연금 수령 선택,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주거 형태의 조정 등 중요한 재무 결정이 집중되는 시기임
- 이 시기의 금융 실수는 만회하기 매우 어려우며, 개인의 빈곤을 넘어 사회적 비용으로 전이될 수도 있음
  - 젊은 세대에 비해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므로, **금융 실수로 인한 피해**도 더 클 수 있음
  - 고령소비자는 **인지적, 신체적 역량 부족**으로 금융 실수로부터 회복하기 어려움(Agarwal et al., 2009)



# 논의배경

경제 : 경제일반

## 80대 고령도 '고위험투자' 직접 체크한 순간...홍콩ELS 소송서 줄줄이 패소

중앙일보 | 입력 2026.04.29 17:04

김다영 기자 구독



2024년 3월 홍콩H지수(항셱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

## [축제의 그늘]① "주식 판 돈 안 들어와"... 예수금 모르는 '백발 개미'도 공격 투자

사회 > 단독

## [단독]조직화된 치매머니 사냥... 태양광-대출 사기까지

동아일보 | 입력 2026-03-25 04:30

👁 2 ❤️ 1



2000억원대 폰지사기 주범 구속  
인지능력 약해진 고령층 대상으로 "쇼핑몰 투자맨 1.5배 고수익" 속여  
노인 약탈범, 친족 넘어 기업화 양상  
"태양광 큰 수입" 계약금 뜯어내고, 아파트 대출 받게해 빼돌리기도



의 미끼 노인 상대 투자 사기...피해액 최소 89억' / YTN 사이언스

- II. 투자자산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III. 투자금 예치기간  
2025년 - 2025년
- IV. 투자내역

1. 상기투자금을 금융상품에 공동 투자함을 확인한다.
2. 예치기간동안 상기 투자금에 대해 구좌당 월 150만원을 투자수익금으로 보장한다.

## 단독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피해자 대부분 '고령층'

Watch on YouTube

# 논의배경

- 선행연구들은 금융역량의 개념과 효과를 폭넓게 다루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 금융교육 및 금융역량 관련 국내 연구는 학교 금융교육, 은퇴저축기 금융역량 강화 등 주로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룸
- 이에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후생**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중고령자와 금융역량 취약계층의 **금융후생 개선을 위한 금융역량 강화방안**을 제안
  - 변혜원·이재연(발간 예정), 「2025 보험소비자행태조사: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 진단과 강화방안」

# Road Map

## 설문조사 결과



- 금융지식
- 금융행동
- 금융후생

## 분석



- 금융지식·행동·후생 간 관계
- 금융역량 취약집단

## 제언



- 중고령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방안

## Ⅱ

#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지식·행동·후생

---

# 조사 개요

- 전국 55~79세 중고령자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2025년 7월~8월)
  - 중고령자 정의는 관련 법령이나 연구자 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 조사에서는 은퇴 직전 또는 은퇴기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의 금융역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중고령소비자를 55세 이상 소비자로 정의함
  - (다만,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인구총조사 분포와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본 조사 응답자의 학력 수준은 인구총조사 표본(20%)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학력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후생을 조사함
  - 금융지식: 일반 금융지식과 중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지식을 평가
  - 금융행동: 일상적 돈 관리, 장단기 재무계획, 금융자문 활용 여부, 디지털 금융 이용 수준 등
  - 금융후생: 재무상태 만족, 경제적 안정, 부채 부담의 세 영역으로 측정

# 금융지식·행동·후생 측정 항목



구분	소분류	측정
금융지식	일반 금융	이자율, 물가상승률, 위험분산, 주택담보대출, 채권가격, 대출 맥락에서의 복리
	퇴직연금	인출방식, 근로자의 역할, 세제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비·간병비, 급여 적용, 연령요건, 본인 부담금
	재무관리 능력	주거비용, 노인돌봄 비용, 기초연금, 은행계좌 잔액, 가격 비교 웹사이트, 보험비교, 저축상품 비교, 복지혜택 확인, 세금납부 관련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



금융행동	연금가입	가입한 경험 또는 가입 중인 연금
	일상적 돈 관리	수입지출 관리, 신용카드 이용
	재무 계획	노인돌봄 계획, 위임장 등
	신탁	이용 경험, 목적
	금융자문	금융자문 활용 여부, 자문 주체
	디지털 금융 이용	온라인 banking, 간편결제 앱, 금융상품 가입, 신용점수 조회, 소비내역 및 자산관리



금융후생	만족도	재무상태 만족도(6점 척도)
	재무상태	재무상태 설명 정도(6점 척도)
	부채부담	부채부담 정도(6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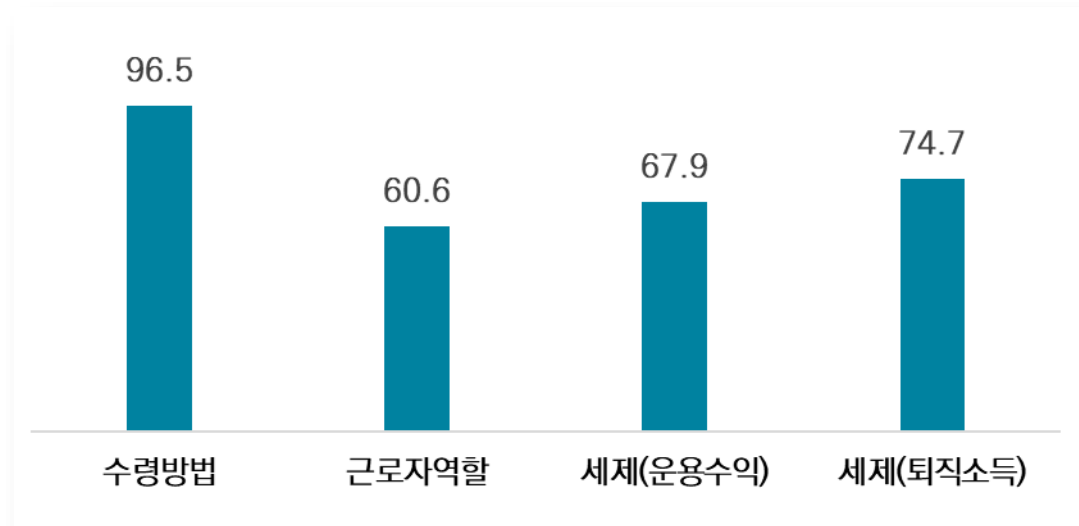
# 금융지식



• (100점 환산 점수) 일반 금융지식은 63.6점, 퇴직연금 지식은 75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식은 69.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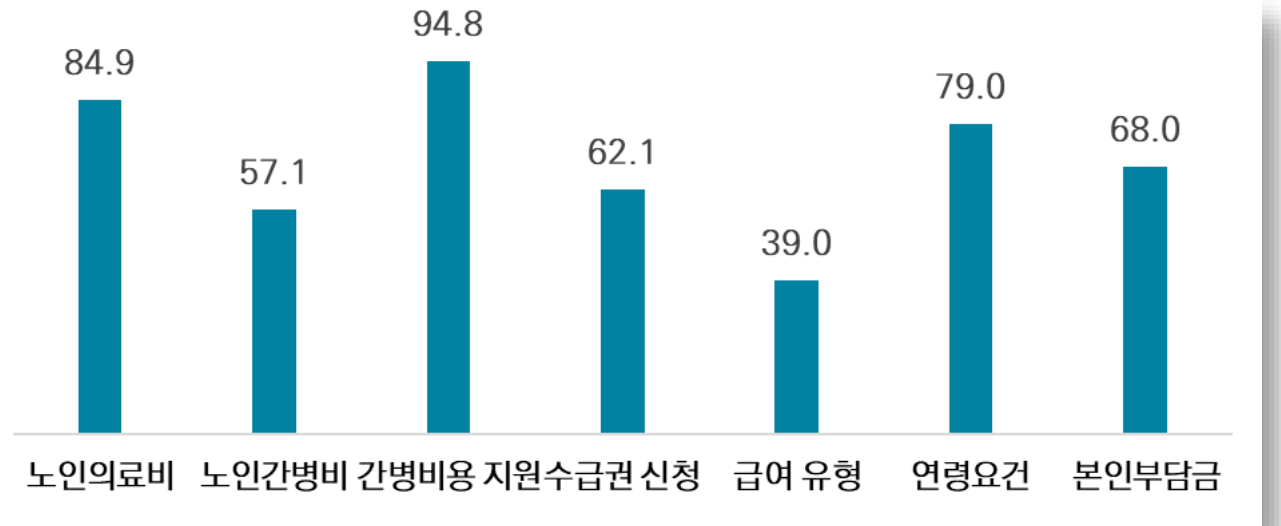
- 일반 금융지식: 복리, 채권가격, 대출 관련 질문에 대한 정답률 ↓
-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운용주체가 근로자라는 점, 연금수령 시 세금 부과 사실에 대한 정답률 ↓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관련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심의 절차 필요 사실에 대한 정답률 ↓

퇴직연금 지식 항목별 정답률 (단위: %)



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가입 중인 780명을 대상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식 항목별 정답률 (단위: %)



주: 55~79세, 3,000명을 대상으로 함



# 금융행동: 건강 악화 및 죽음 대비

- **노인돌봄 비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 ‘생각은 해 보았으나 특별히 실천한 것이 없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음’, ‘잘 모르겠음’이 48.9%를 차지
  - 저축, 노인돌봄 관련 보험, 재산 처분 등 **구체적인 노인돌봄 계획이 하나라도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47%**였음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를 대비해 자산 관리를 위임(재산관리 위임장 등)해 둔 비율은 16%에 불과
- 장례비용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4.7%,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44.7%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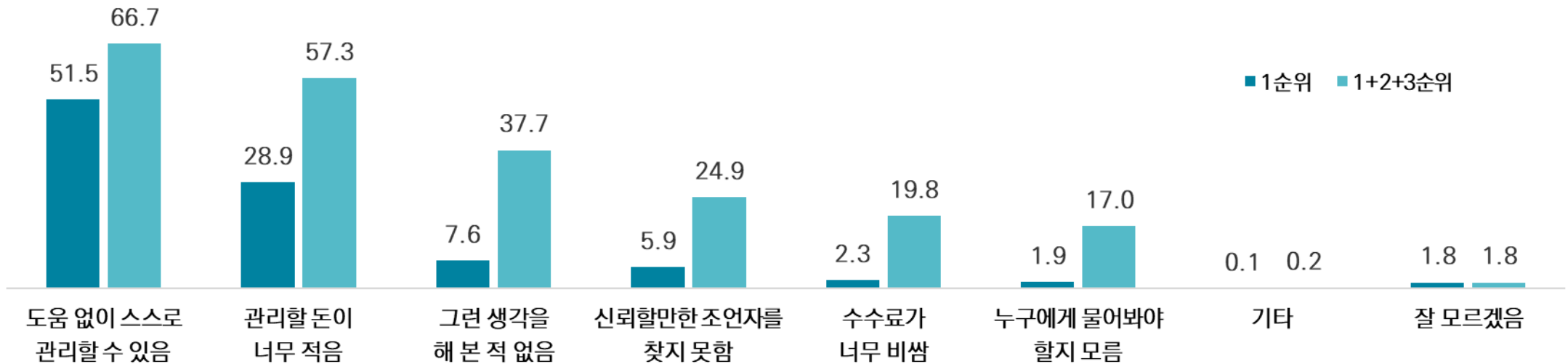
# 금융행동: 금융자문



-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하는 비율은 43.1%였으나, 배우자나 친지가 아닌 **전문 금융자문**(금융회사 직원, 금융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부·공공기관 상담창구 등)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25%에 불과**
  -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유로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서’가 51.5%, ‘관리할 돈이 너무 적어서’가 28.9%, ‘조언을 구할 생각을 해 본 적 없다.’가 7.6%였음(1순위 기준)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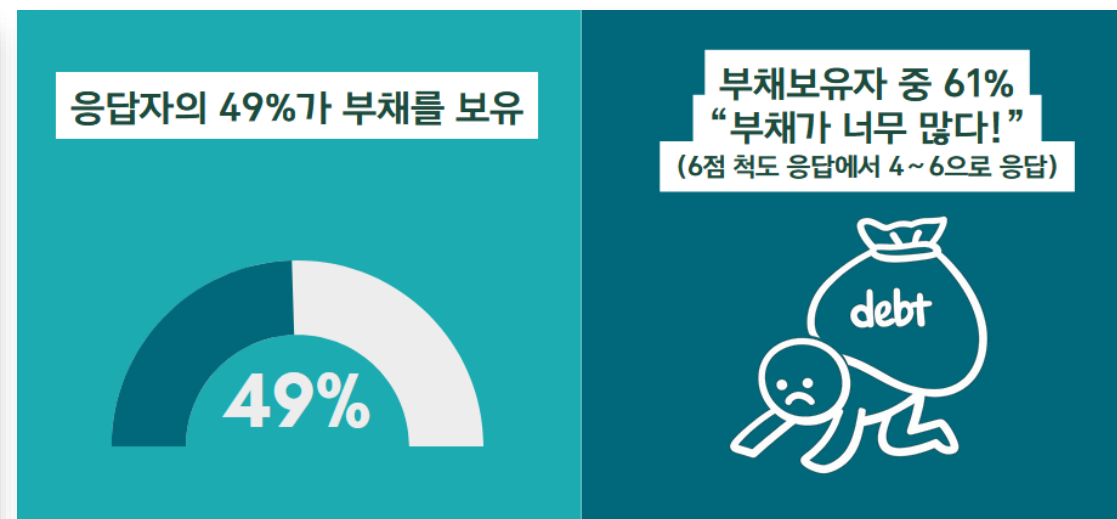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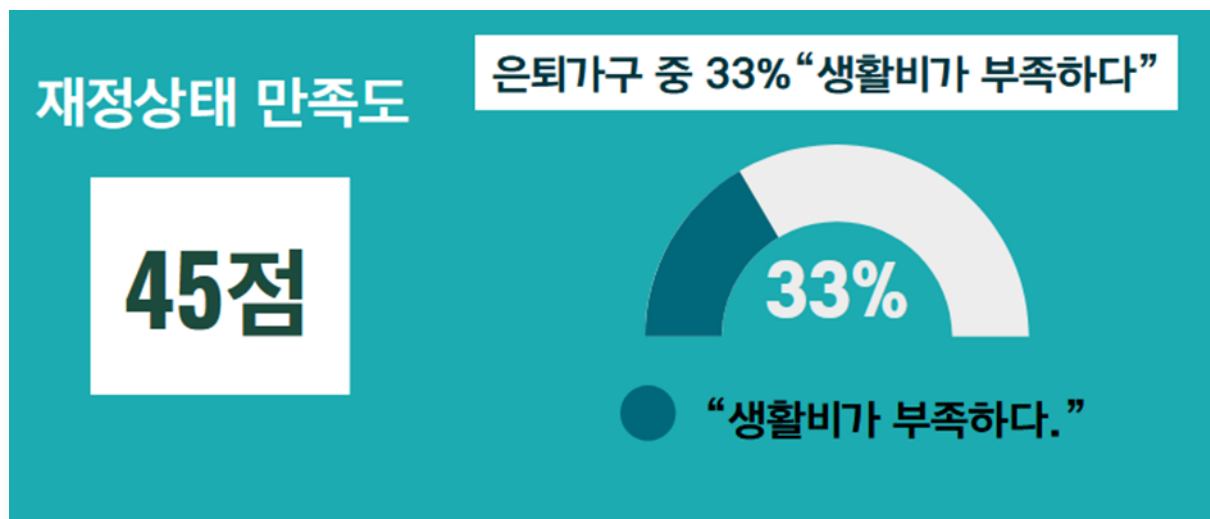


주: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708명을 대상으로 함

# 금융후생: 재정 상태 만족도



- 재정 상태(자산, 부채, 저축 등) 만족도 점수는 44.8점 (100점 환산)
  - 응답자의 36.6%가 '경제적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응답
- 은퇴가구의 32.5%가 지난 1년간 **생활비 부족**을 경험했다고 응답
- 부채 보유자(응답자의 49.2%) 중 61%가 **'빚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었음
  - 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융자산 처분을 통해 부채를 갚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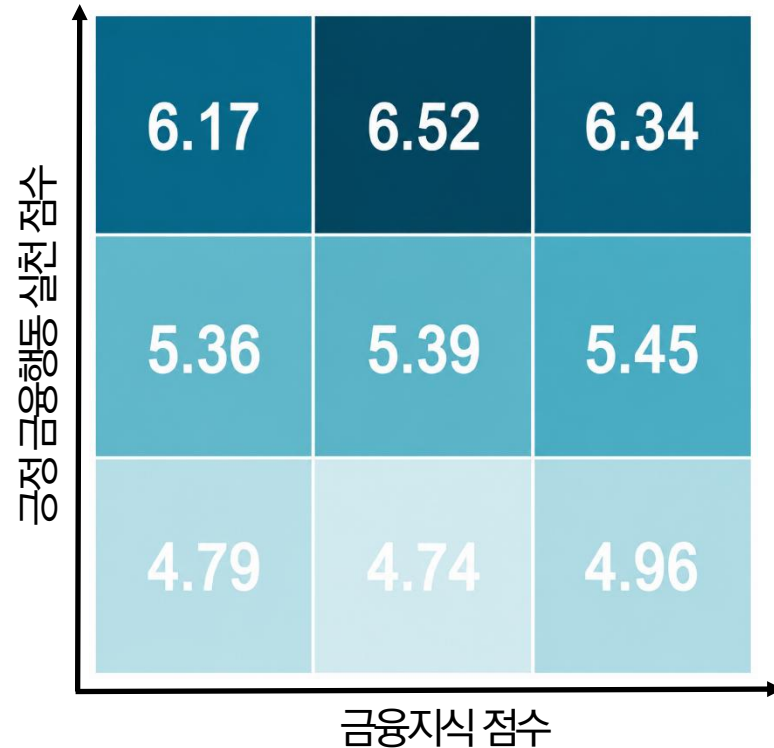
# 금융지식·행동·후생

- 금융지식이 높은 집단이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수준이 높음
- **금융행동이 금융후생에 주된 영향**을 미치며, 금융지식은 금융행동을 매개로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지식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금융행동 지수가 높을 수록 금융후생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상승

금융지식 수준별 금융행동

내용	전체	지식 하	지식 상
수입지출 관리 여부	0.90	0.87	0.92
신용카드 대금 전액 납부 여부	0.81	0.78	0.86
가입 연금 개수(0~4)	1.43	1.28	1.62
노인돌봄 계획 여부	0.47	0.41	0.53
전문 금융자문 활용 여부	0.25	0.21	0.29
디지털 금융이용(0~6)	4.31	3.96	4.63
응답자 수	3,000	1,137	974

금융지식-금융행동별 금융후생 점수



## 금융역량 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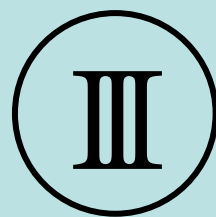
- 금융지식,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수준에 따른 3분위 집단 중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지표 수준이 모두 가장 낮은 집단을 **금융역량 취약집단**으로 정의
  -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수준이 낮으면 금융후생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금융지식 수준도 낮다면 행동을 개선할 확률도 낮으므로 금융후생 개선을 위한 개입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판단
- 금융역량 취약집단과 타 집단을 비교한 결과, **금융정보 접근성 부족,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미숙, 자신의 금융역량에 대한 과신**이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및 금융후생 개선을 방해하는 요인임을 확인함
  - 금융역량 취약집단과 비취약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취약집단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고령층, 저학력, 저소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정보 접근성의 이유로 금융자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취약집단이 70.4%(비취약집단이 60.8%)였고,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점수도 0점 비율이 취약집단은 15%(비취약집단은 2.6%)였으며, 금융역량을 과신하는 비율은 취약집단이 27.1%(비취약집단은 13.9%)였음

## 소결

- **죽음이나 건강 악화에 대비한 구체적 금융계획이 미흡**
  - 죽음이나 질병 등 부정적 사건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기제로 인해 사전 대비가 지연될 가능성
- 은퇴가구의 약 1/3은 생활비가 부족하고, 부채 보유자 중 과반수가 빚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었음
  - **예산관리, 부채관리** 등 재무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저소득·저자산 가구는 소득 충격,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고, 부채 의존도가 높아 재무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채관리, 현금흐름 관리, 최소한의 완충자산 마련이 중요함

## 소결

- 금융지식 →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 금융후생 증대
  - 금융지식 수준이 높더라도 그것이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재정적 만족도나 안정도는 개선되지 않음
  -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목표를 '지식 습득' 에서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으로 전환해야 함
- 금융역량 취약집단은 구조적 장벽을 직면하고 있음
  - 비 취약집단에 비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고령층, 저학력, 저소득 비율이 높음
  - 전문 금융자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디지털 금융 활용능력이 부족하며, 스스로의 금융역량 과신 경향도 높음



# 금융역량 강화방안

---

##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지원을 통한 금융후생 개선

- 중고령소비자의 금융후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식 제고 뿐만 아니라, 부채 및 현금흐름 관리, 노인 돌봄 대비, 재정위임, 금융자문 활용 등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을 돕는 지원 체계가 필요함
-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나 죽음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돕는 공공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부정적 사건을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 자신은 관찮을 것이라는 낙관 편향, 상태유지 편향 등이 미래 위험 대비를 미룰 수 있음
  - 건강 악화나 죽음 대비를 가족 보호나 자신의 보호 등 긍정적인 개념으로 표현(Framing)하거나, 준비 절차를 표준화하고 단순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인지비용과 현재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들도 활용 가능

##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지원을 통한 금융후생 개선

- **공적 금융자문의 접근성을 혁신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함**
  - 신뢰할 수 있고 무료인 공적 재무관리 서비스(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가 부채관리, 생활비 관리 등 현금흐름 관리와 완충자산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특히, 금융역량 취약집단의 금융자문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무료 재무관리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재배치해야 할 것임
- **다만, 공적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디지털채널 활용 수준이 낮은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실수를 하더라도 쉽게 바른 궤도에 돌아올 수 있는 설계를 통해 비대면 재무진단 서비스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 대면 금융자문 서비스도 유지해야 함 (e.g.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대상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지원을 통한 금융후생 개선

- 소비자의 **금융역량 과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객관적 자가진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금융역량 취약집단은 자신의 금융역량에 대해 과신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경우 일상적 돈 관리나 미래 계획에 있어 긍정적 금융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각하지 못할 수 있음
  - 재무진단이나 교육 프로그램 전 짧은 퀴즈를 풀도록 하여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자문이나 금융 관련 도움 활용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긍정적인 금융행동의 실천을 돕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 대신 감정, 심리, 인지적 요인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향(**행태편향: Behavioral Bias**)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야 함
  - 금융지식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행태편향이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을 방해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지원을 통한 금융후생 개선

- 위 개선방안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금융지식 제고를 넘어 실제 금융행동의 변화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층과 금융취약계층의 재무적 안정과 미래 위험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요약: 중고령자 금융역량 강화방안

구분	현황	강화방안
미래 위험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갑작스러운 건강악화, 죽음에 대한 계획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인식 제고 및 지원 서비스:</b>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죽음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돕는 공공 서비스 및 정보 제공 확대</li> </ul>
공적 금융자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퇴가구의 32.5%는 생활비 부족을, 부채 보유자의 61%가 과도한 부채 부담 경험</li> <li>금융역량 취약집단은 전문 금융자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채관리, 현금흐름 관리, 완충자산 마련을 위한 재무관리 지원</li> <li><b>공적 서비스 접근성 혁신:</b> 신뢰할 수 있는 무료 공적 금융자문 서비스 홍보 강화 및 접근성 제고</li> </ul>
대면·비대면 금융지원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역량 취약계층의 디지털금융 활용 수준이 낮아 구조적 배제 위험이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하이브리드 지원:</b> 비대면 재무진단의 사용 편의성 개선(실수 방지 설계 등)과 함께, 대면 상담 채널(신용·부채 컨설팅 등)의 적극적 유지·활성화</li> </ul>
금융역량 과신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역량 취약집단은 비취약집단 대비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을 과신하는 경향이 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객관적 자기진단 도입:</b> 재무진단 전 짧은 퀴즈를 통해 실제 금융지식 수준을 인지시키고 전문 조언의 필요성을 환기</li> </ul>
행동변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지식만으로는 금융후생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금융행동의 변화가 핵심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행태편향 경감 조치:</b> 대출 시, 총 상환비용 시각화 등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경감시키는 넛지(Nudge)를 활용</li> </ul>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변혜원·이재연(발간 예정), 「2025 보험소비자행태조사: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 진단과 강화방안」,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윤정혜(2025), 「만 55~64세 고령층의 조기 퇴직과 계속 근로」, 『고용동향 브리프』, Vol. 1, 한국고용정보원

Agarwal, Driscoll, Gabaix, and Laibson (2009) “The Age of Reason: Financial Decisions over the Life-cycle with Implications for Regula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s Activity*, 2

Fong, Koh, Mitchell, and Rohwedder (2020)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Decision-making at Older Ages”,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 PRC WP2020-24, Pension Research Council

Hauff, Carlander, Gärling, and Nicolini (2020) “Retirement Financial Behaviour: How Important Is Being Financially Literate?”, *Journal of Consumer Policy*, 43

## 참고문헌

Korniotis, G. and A. Kumar(2011), “Do Older Investors Make Better Investment Decisio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3(1), pp. 244~265

Lusardi, Mitchell, and Oggero (2020) “Understanding Debt in the Older Population”, *NBER Working Paper*, No. 28236

OECD(2023), *OECD/INFE 2023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World Bank(2013), *Financial Capability Surveys Around the World: Why Financial Capability Is Important and How Surveys Can Help*

# 선행연구

## • 연령과 금융행동

- Agarwal et al.(2009): **금융 실수**(신용카드 사용, 과도한 이자 및 수수료 지출 등)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U 자형을 보임(중년 소비자가 가장 적은 실수)
- Korniotis and Kumar(2011): 투자자의 연령 ↑ → 포트폴리오 선택 시 경험법칙을 더 많이 활용, **투자기술 은 약화**(인지 노령화의 부작용)

## •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 및 문제(Agarwal et al., 2009)

- 젊은 세대에 비해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므로, **금융 실수로 인한 피해**도 더 클 수 있음
- 고령소비자는 **인지적, 신체적 역량 부족**으로 금융 실수로부터 회복하기 어려움
- 미국에서는 근로자에 비해 은퇴자들에 대한 실질적 규제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함

# 선행연구

## • 고령자의 금융역량과 금융행동 간의 관계

- Fong et al.(2020): 금융이해력 ↑ → 신용카드 채무를 적시에 상환할 확률, **주식을 보유**할 확률, 연령별 적정 **투자자산 배분 전략**을 따를 확률 ↑ (싱가포르 고령자)
- Huff et al.(2020):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인 금융이해력은 개인 은퇴 행태의 3단계인 **은퇴계획, 저축, 투자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스위스 소비자)
- Lusardi et al.(2020): 금융이해력 ↑ → 평균 이상 신용점수, 은퇴계획 확률 ↑ ; **과도한 부채, 채권추심 경험, 의료 부채, 학생 부채** 확률 ↓ (미국 51~61세 소비자)
- Lusardi et al.(2020): 금융이해력, 정보 부족, 행동편향 → 노년기 **부채**에 영향 (미국 51~61세 소비자)



# 금융역량

## • 금융역량

- 주어진 사회경제적 환경 하에서 (자신의) 최선의 재무적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World Bank, 2013)
- 이 능력은 자신의 자원을 관리하고,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를 이해, 선택,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금융지식, 태도, 기술, 행동을 포괄함

## •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 vs.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 OECD·INFE,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금융이해력 조사 등에서 사용하는 ‘금융이해력’은 ‘금융역량’과 같은 뜻의 단어임
- 그러나 경우에 따라 ‘금융이해력’은 금융지식 수준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여 본 발표에서는 ‘금융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 설문문항 설계 시 참고 조사

## • 금융지식

- 미국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 영국 OPRI(Older People in Retirement)
- 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 OECD(2023)

## • 금융행동

- 영국 OPRI
- 영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The Financial Lives Survey*

## • 금융후생

- 미국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Financial Well-being
- OECD(2023)



## 참고: 금융지식·행동·후생 관계 분석에 사용한 변수 정의

대분류	측정
금융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g3 질문, 주택담보대출, 채권가격, 대출 맥락에서의 복리 개념</li> <li>• 금융지식 지표: 정답 수(최대: 6점)</li> <li>• 점수 분포를 기준으로 3분위(금융지식 수준 상, 중, 하)로 구분</li> </ul>
금융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입지출 관리: 자산관리 전문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 스프레드시트, 가계부나 노트, 은행거래 내역이나 계좌 잔액 검토 중 하나 이상 사용할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li> <li>② 신용카드 대금 전액 납부: 전체대금 상환 또는 신용카드 미보유자 1, 그렇지 않은 경우 0</li> <li>③ 가입연금 개수(최대 4)</li> <li>④ 노후돌봄 계획: 대비를 위해 저축, 보험가입, 재산 처분 계획 중 하나 이상 1, 그렇지 않은 경우 0</li> <li>⑤ 금융 자문 활용: 전문 금융자문 활용 1, 그렇지 않은 경우 0</li> <li>⑥ 디지털 금융 이용(최대 6)</li> </ol> </li> <li>• ①, ②, ④, ⑤: 더미 변수</li> <li>• ③, ⑥: 특정 값을 최댓값으로 하는 이산 변수, 최댓값으로 나눔으로써 [0,1]로 정규화</li> <li>• 금융행동 지표 = ①+②+(③/4)+④+⑤+(⑥/6)(최대: 6점)</li> <li>• 점수 분포를 기준으로 3분위(금융행동 수준 상, 중, 하)로 구분</li> </ul>



## 참고: 금융지식·행동·후생 관계 분석에 사용한 변수 정의

대분류	측정
금융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무상태 만족도: 6점 척도 응답이 5, 6이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li> <li>② 재무상태 설명 정도: 각 문항 6점 척도 응답이 5, 6이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총 8문항, 재무상태 중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li> <li>③ 부채부담 정도: 6점 척도 응답이 5, 6이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li> </ul> </li> <li>• 금융후생 지표 = ①+②+(1-③)(최대: 10점)</li> <li>• 점수 분포를 기준으로 3분위(금융후생 수준 상, 중, 하)로 구분</li> </ul>

